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 시점 배포 시점 배포 2026. 3. 24.(화)

사이버범죄와 침해사고로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

-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24)

【관련 국정과제】21-2. '모두의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로부터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성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기전화(보이스피싱)와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 근거, ②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 지정 등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③이러한 내용을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예) △침해사고 발생 사실 및 대응 방법 등 안내, △피해 신고·접수, △예방 교육 제공 등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은 물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 구체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안전한 디지털 포용 사회를 위해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실 디지털 포용정책팀	책임자	팀장	정준욱 (044-202-6150)
		담당자	사무관	이하성 (044-202-6155)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